

The 20th Busan Dance Festival

2011

제20회

# 부산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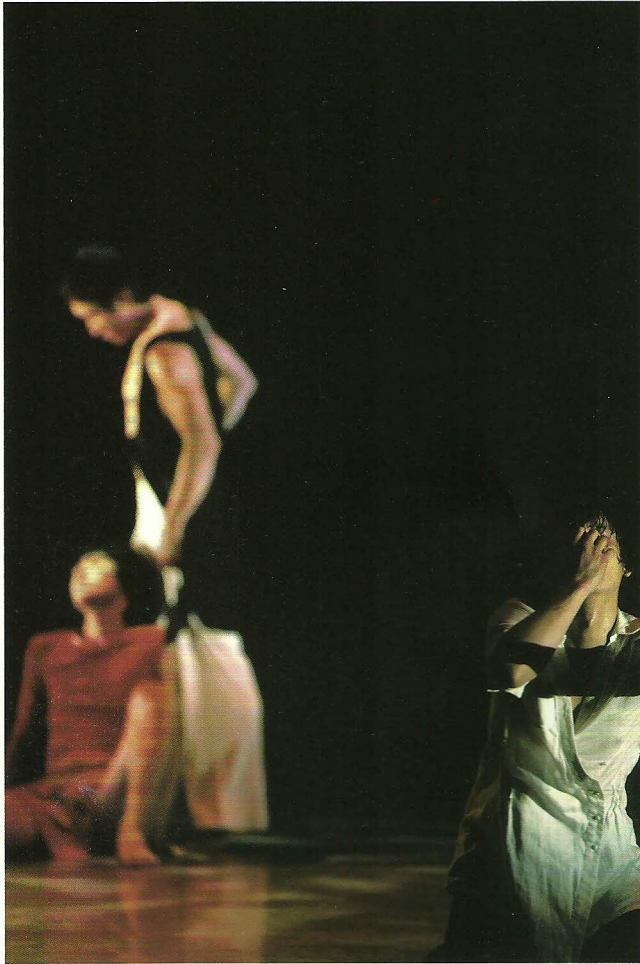
2011. 7. 4월 ▶ 6수 PM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부산광역시 주관 :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공연문의 : 051-632-5116  
 후원 :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mbc 부산문화방송 CBS 기독교부산방송 한국예총부산광역시연합회 KNN BBS BTV 방송

※본공연은 2011년도 문예진흥지원금을 받아 공연됩니다.



작품내용

오늘 하루도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이 반복된다.  
일상은 무기력한 나의 어깨와 반복된 나의 손놀림, 그리고 단순한 머리회전....  
같은 사람들을 스쳐지나가고, 모르는 사람에게서 예전의 향수를 느껴며,  
오늘은 다른 음악을 들어면서 시간과 함께 지나간다.  
그 다른 음악에서 예전의 느꼈던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  
그런 시간들과 흘러간다.

흐르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제각기 길을 가고 있다.  
오늘은 무엇을 할 지, 무엇을 얘기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생각하면서 말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흐르는 음악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불빛 찬란한 거리에 심장을 두드리는 음악.  
그것은 위를 쳐다보는 나에게 싫증감만 찾아오고,  
흔들거리며 아래만 쳐다보는 이에게 이상한 시선만 오간다.  
내가 이상한 걸까?

심장을 펌프질했던 음악들, 싫증감을 오게 했던 음악들....  
낮선 거리에서 익숙한 멜로디인 것이다.  
추억속에 나 또한 그 곳에서 그 음악을 들으며 아래만 쳐다보며,  
위를 향해 소리지르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나에게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음악은 나에게 빠른 템포의 음악에서 선율이 고은 음악을 들려주었다.

나에게 추억은 자취이고, 기억은 현실이다.  
아래를 보는 이가 해답이 찾을 수 없고,  
위를 보는 나 또한 정답일 수 가 없다.  
시간은 흐른다.  
곧, 나의 아름다운 선율은 아주 느린 아다지오 음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나는 시간과 함께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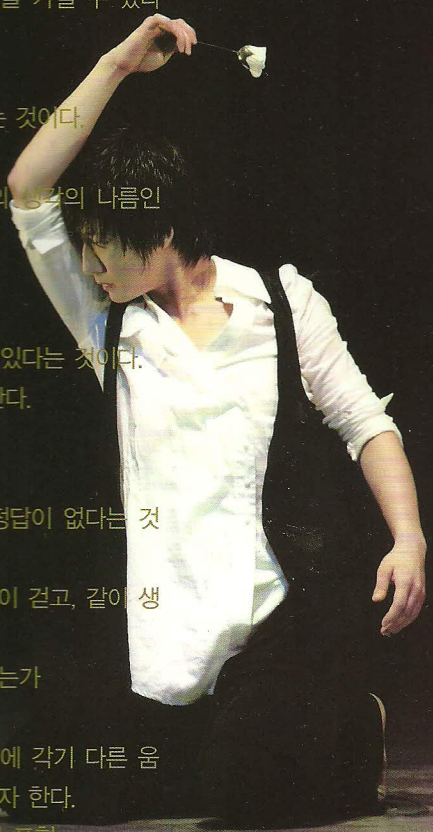
특별출연 - 손미리

현) "공복극단" 신인여배우  
출연작품  
연극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주역  
〈날 보러와요〉주역  
〈머쉬멜로우 시즌 1〉〈머쉬멜로우 시즌 2〉주역  
〈정육점총각과 생선가게 아가씨〉주역

# “Crazy music and street” | 손영일 무용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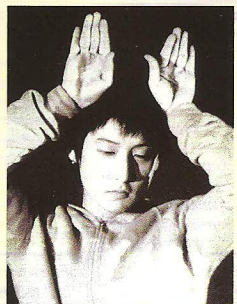
## 안무의도

사람이란 공통분모는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것이다.  
 한가지의 사물을 보고, 한가지의 소리를 들으면서...생각이라는, 느끼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게 사람이다.  
 생각이라는 큰 공통분모 아래 작은 분자들이 나눠져 있다.  
 그 작은 분자들은 나름의 성격을 띠고, 무시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상은 무궁무진한 사물, 매개체, 음악, 시간등 주제로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른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의 나름인  
 것이다.  
 사람은 오감을 자극하는 것에 다양한 반응을 일으킨다.  
 아름답고, 아다지오 선율에도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웃는 자가 있고,  
 또는 그 선율조차 다르게 반응하여 빠른 템포의 알레그로 선율로 취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에 감정이라는 분자들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생각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여 제한이 없으며, 옳고 그름도 없다.  
 그건 단지 자신의 생각이며, 수학적인 해답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외엔 그 정답이 없다는 것  
 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걸었던, 자신이 느꼈던 자취들을 누군가는 같이 걷고, 같이 생  
 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이다.  
 공통분모인 음악이라는 것을 분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그것은 자신의 보고 느끼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Crazy music and street" (미친음악 그리고 거리)는 음악이라는 큰 매개체에 각기 다른 움  
 동음을 취하며, 다양한 음악 장르지만 결국은 음악이라는 공통분모를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때론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음악이라 표현  
 할 수도 있다.  
 생각해 보면, 자신 또한 그 음악에 심취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때 그 상황에서 미친 음악을 즐기는 자와 그것을 바라보며 의문점을 갖는 자.  
 결국 음악이라는 큰 공통분모라는 것이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 상황을 느끼고 생각하는 본인이 정답인 것이다.  
 "Crazy music and street" (미친음악 그리고 거리)는 해답을 찾기 보다는 보여지는 것에 취  
 골리며,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본인의 생각이 정답  
 이라는 것을 작품화 한 것 이다.



STAFF  
 안무 - 손영일  
 연출 - 박은정  
 조연 - 박동인  
 세트 - 황경호  
 조명 - 이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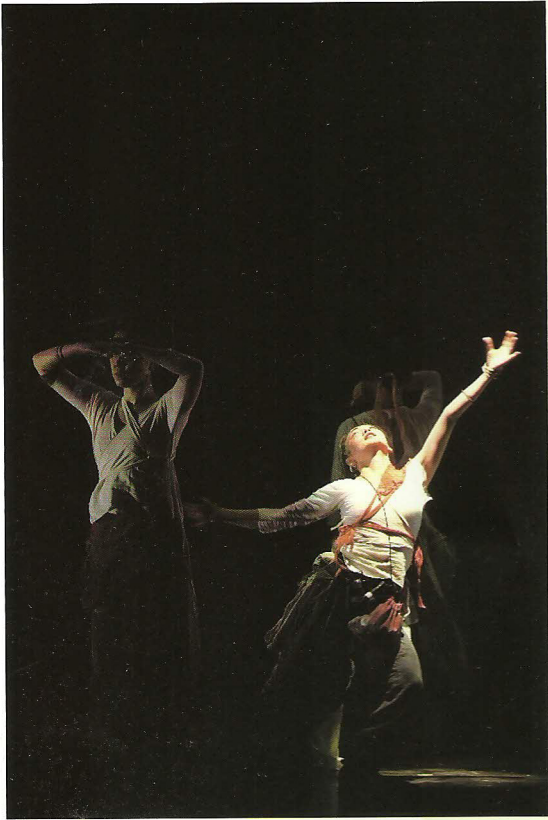
출연 김태윤 염지균 황효연 최성은 김용욱  
 조연 강미란 김희원 이유미 신보라



손영일

휘 DanceTheater 안무가  
 제 23회 무용지도자협회 현대부분 최우수상  
 제 17회 부산무용제 연기상  
 제 26회 부산무용콩쿠르 은상  
 제 18회 부산무용제 대상 및 안무가상

7월 5일 Tue



### 작품내용

바람이 분다.  
바람에 맞서는 나의 말, 흩어져 날려간 바람의 말은 언젠가는  
차마 말로는 다 전달하지 못했던 참뜻으로 되돌아와 너의 온몸을 휘  
감아 둘 것이다.

안들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소리 치고 있는데...  
느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너를 향하고 있는데...

달을 곳을 찾지 못하는 너의 외침과 몸부림에  
끝없이 흔들리고 끝없이 다시 서는 너는  
온힘을 다해 너를 온전히 제쳐 열 수 있기를 열망하며  
또 다시 맞서고 서서 외친다.

### 안무의도

누군가 달을 가르키기 위해 손가락을 들어 올렸을 때 어떤 이는 달이 아닌 손가락을 보았다.  
진실 되고 간절한 의지와 뜻을 전달해 주리라 기대하는 언어, 문자, 형상들 하지만 우리는 얼마  
나 서로의 참뜻에 온전히 접근하고 있는가? 에 대한 의문으로 이 작품을 출발하였다.

#### 말의 허망함

춤 통하여 말로 인해 놓쳐버린 우리의 참 뜻과 말로 인해 다 전달되지 못한 말 밖으로 빠져서  
나오는 그 무엇을 표현하고자 한다.

# 외치다 | 허경미 무용단 Red Step



##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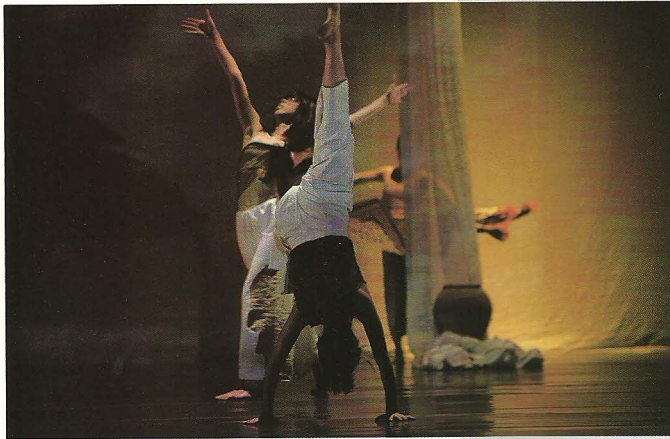
음악 - 나미맛, 젊은 소리 쟁이  
 촬영 감독 - 광동인  
 무대 미술 - 황지선  
 무대 감독 - 이주영  
 의상 - 민천홍  
 영상디자인 - 도라도라  
 기획 - 이상현 · 이윤희  
 출연 - 안수정, 허경미, 김현정, 김옥희, 신윤경, 현선화, 조은미, 이용진, 김세준



허경미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박사과정  
 통영승진무 이수자  
 전 부산시립무용단 부수석

7월 5일 Tue



## 작품내용

### 땅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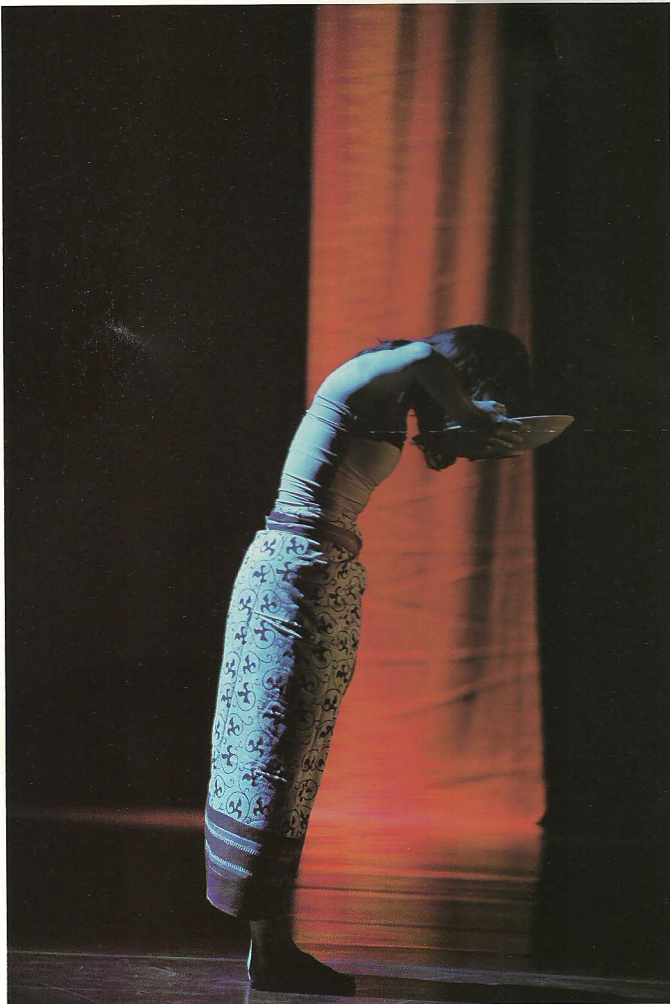
판도라의 상자에서 인간은 희망을 찾아낸다.  
대지에 싹이 트고, 이어 꽃이 피는 순간 고단한 삶의 여정이 시작되지만  
그 안에서 인간은 희망을 싹 틔운다.  
안온한 일상의 테두리에서 침묵의 시간을 벗어나 나를 찾기 위한 수많은  
몸부림의 순간들이 흐른다. 이 순간 생의 축복됨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며..

### 남아있는 내일

마음 영원한 달고 싶은 내면 깊은 그 곳은  
늘 되돌아 갈 수 없는 시간의 길 위에서.. 당신의 모습을 그리우며  
내 얼어붙은 마음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함에 난 오늘도 햇살 가득  
한 날 꿈꾸며  
눈부신 길 위에서 생명의 노래에 이끌려 내 몸짓으로 풀어내는 이야기  
들..  
생명이 시작되는 소리로 다시 깨어난다.

### 殮하다

우리는 죽을 때 까지 사는 법을 알아간다.  
막다른 경계를 마주했을 때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지라도 그 순간,  
우리에게겐 아직도 가야할 길이 있다는 것이 잠재한다.  
몸으로 옮겨진 불꽃 안에서  
이념의 혼돈으로 다변스런 양상들은 많은 깃발들을 세운다.  
순수하게 자연 속에서 살다가 조용히 돌아가는 본능은 어두운 과거 속  
에 묻고,  
부활의 생명,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며 삶의 공간을 메운다.



# 天罔恢恢 | L.O.M 무용단 - 殮



## 안무의도

지난 시간 흔들리지 않으려 중심잡고 살아내기 위한 죽음과 삶의 깊은 안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殮을 통해 그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으로, 삶의 소리 남을 죽음에서 그려진 영혼의 정체성을 통해 오감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인의 자태로 자아현상에 대한 고통을 상징화하여 몸의 의미로 분출한다.

## STAFF

예술감독 및 연출 - 하정오  
음 악 - 김동욱  
조 명 - 손세나  
영 상 - 김민성  
의 상 - 김윤석  
무대미술 - 박준영

출 연  
허귀정 오승택 이재인 최병훈 유선호 유동현 박상희  
배민우 임나영 이수정 조지현 하정오 김정숙

조지현

부산대학교 강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광역시 생체연합회 이사  
2010 전국생활대축전 상임 안무



7월 6일 Wed



작품내용

〈비밀의 강〉

- I. 비밀의 강  
비밀이 있었네,  
고요의 그 강은.
- II. 환란의 강  
흐르고 흘러가네,  
환란의 그 강은.
- III. 평안의 강  
너와 나 함께였네,  
비밀의 그 강은.



# 비밀의 강 | 부산발레연구회



## 안무의도

삶은,  
 고인 듯 흐르고 흘러  
 더 넓은 바다되는  
 비밀의 그 강인 것을..

## STAFF

예술감독 - 주수광  
 연출 - 한철선  
 대본 - 김남영  
 음악 - 정혜정  
 무대조명 - 광동인  
 의상 - 로즈

출연  
 박종위, 김태윤, 김사라, 김한나, 백향은  
 송지혜, 한진희, 홍상은, 박상희, 김창성  
 김민지, 정아르미, 황선미, 설수민, 신다혜  
 옥다운, 임수선, 최여경



임계영

부산발레연구회 이사  
 Youngs Ballet Academy 대표  
 2008~2010 임계영의 발레 공연